

군산시간여행축제 ‘초대박 성황’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근대역 시박물관 일원과 시간여행마을(월명, 영화동 일원)에서 펼쳐진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초대박 성황을 이룬 가운데 3일간의 축제 여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행사의 규모에서 예년을 상회하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축제장 이곳저곳을 빠르게 채우며 군산의 원도심을 하나의 축제 장소로 변모시킨 가운데 골목골목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개막 당일인 퍼레이드에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문정성시를 이룬 가운데 근대 중절모 콘셉트로 퍼포먼스를 벌여 장관을 이루었고 농악단, 만장, 인력거 등 1930년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연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백투더 1930’은 독립자금을 모으는 미션수행이 최초로 도심의 골목 200m 구간에서 펼쳐졌고 ▲‘쌀의 수탈을 막아라’ ▲‘태극기를 지켜라’ ▲‘독립군을 보호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대표 프로그램은 근대역사 시대의 이쁜 일제강

개막 당일 퍼레이드에 2000여명 시민 찾아 관광객 “타 축제와 차별성 부각” 호평 잇따라

집기 역사적 의미를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깨닫고 다시 한 번 되새긴다는 교육적 의미도 담고 있어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시간여행축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된 점이다. 군산의 근대역사 시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대역사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 해설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깊이 있는 역사적 스토리를 전달했고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한 관광객들도 일제 강점기의 건물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개항이전부터 선교사를 통해 커피가 유입되었을 역사적인 배경과 일제강점기 시절 조계지를 중심으로 (지금의 시간여행마을 일원) 그 당시의 커피의 역사를 일인자 ‘커피(Coffee) 이야기’ 이색 체험부스’에서는 ▲활실의 커피체험

▲로스팅과 드립체험 ▲커피역사사 진 및 기구 전시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시간여행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돋보였다는 점이다.

퍼레이드의 참여뿐 아니라 ‘군산 너우스’를 비롯하여 시민음악회, 플라멩코, 각종 체험 등에서 다양한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구 시청사 앞에서 진행된 군산 너우스(오픈 라디오-토크쇼)는 다양한 시민들의 진행으로 군산 시민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시간여행축제와 시간여행의 추억을 소재로 토크쇼가 진행되어 색다른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고, 사전 준비과정에서 SNS 상에서 사전 홍보영상 등으로 통해 축제의 사전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올해로 5번째로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올드카 콘셉트의 차량 전시 홍보를 비롯해 순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퍼포먼스는 전국

투어 홍보 등 사전 홍보마케팅부터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시민들과 타 지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이번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오래 머물다 가고 다시 찾아오는 축제의 변화를 도모한 점도 돋보인다.

군산의 핫플레이스로서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초원사건관’에서는 축제 기간 19시부터 23시까지 ‘사계(四季)’ 미디어파사드를 처음으로 선보여 커다란 야간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이밖에도 시간여행터널(주제관)을 비롯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천막극장, 김철지네 인력거, 1930’s 가비(Coffee)이야기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야간까지 운영되어 6시 이후 텅 빈 마을이 문정성시로 성황을 이뤘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는 지난해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근대역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시민참여 활성화 했다”며 “앞으로 시간여행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군산이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문 기술 없이도 앱 만들 수 있다”

군산대 제작교육 캠프 진행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 타진



군산대(총장 나의균)가 창업 희망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시장 검증을 받아 보는 ‘스마트창작터 앱(App) 제작’ 캠프를 15~16일 부안 바다호텔에서 열었다.

군산대 LINC+사업단이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에는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 교학생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캠프는 IT서비스 분야의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 반응과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하는 디자인 씬킹, 시제품 앱 제작, 앱 시연과 검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의 선임디자이너 등 전문가

사들이 나와 ‘차 산업혁명과 IT’ 앱 기초 이론 ‘코딩없이 앱 만들기’ 랜딩페이지 제작 기법 ‘템플릿 이해와 제작’ 등을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자기소개 앱’ ‘랜딩 페이지’ 등 제작 실습을 하면서 개별적인 멘토링을 받았다.

이영근(융합기술창업학과 1학년) 학생은 “코딩 등 전문 기술 없이 앱을 만들어 볼으로써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노하우를 익혔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추석전 대금 478억원 조기지급

업체 자금난 해소 경제 활성화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각종 계약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은 노인일자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및 사회복지 지원금 140억원,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금 97억원, 기간제 근로자 및 노인 일자리 등 인건비 88억원, 기타 운영비

등 153억원으로 총 47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열흘간의 추석연휴를 시민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25일부터 15일간 시청 종합상황실과 회계과 내에 하도급 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등 업체의 자금난 해소, 하도급대금, 임금체불 방지 및 소송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첫 어린이권리광장 조성

군산시-유니세프한국위, 업무협약 체결
총 6억원 투입 수송근린공원 리모델링

군산시에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며 스스로의 권리를 말하고 공유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마련된다.

지난 15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문동신 군산시장,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희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6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아동의 자기 권리 확산 이행과 성인들의 아동 권리 인식 변화를 위해 계획되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

회에서 검토를 통해 공동 참여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이번에 조성되는 아동권리광장(가칭: 맘껏 광장)은 군산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을 리모델링의 형태로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어린이권리광장 조성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린이 스스로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행복한 장소,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



지난 15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문동신 군산시장,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희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 중심의 아동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아동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는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어린이권리광장인 만큼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해경 - 관공선 선장 ‘바다안전’ 업무회의

해경이 떠다니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관공선(官公船)’의 선장을 모두 초청해 바다안전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군산 앞 바다에서 운항하는 관공선 12척의 선장을 모두 초청해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 안전을 지키고 각종 사건·사고를 공동으로 대응·관리하는 관공선 선장들과 해양경찰 실무진이 만나 해양사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섬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대

응하는 비상급수와 연안해역 응급환자 후송, 해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바다 안전은 어느 정부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며 “전라북도 해상을 책임지는 관공선과 경비함정이 협력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공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공무원 선박들로 해경에서 운영하는 경비함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선, 소방구조선, 병원선 이 이에 해당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